

설악산 울산바위

산신령이 금강산을 만들 때 1만2천개의 봉우리를 각각 그 형체가 다르게 조각할 계획으로 전국 각지에 있는 큰 바위를 모두 보내도록 명하였다. 이때 울산땅에 있던 큰 바위도 누구에게 뒤질세라 금강산 여정에 올랐다.

원래 덩치가 크고 미련한 이 바위는 걸음이 빠르지못해 진종일 올라왔으나 어둠이 내릴 무렵에 겨우 지금의 설악산에 당도했다.

하룻밤을 쉬고 다음날 아침 금강산으로 떠나려 할 때 금강산 신령의 파발이 도착하여 어젯밤 자정으로 1만2천봉을 다 채웠으니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다는 분부를 알려주었다.

바위는 기가 막혔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길도 아득할 뿐만아니라 체면도 말이 아닐 것 같았다.

한참 닢을 잃고 우는 바위의 모습을 지켜보던 금강산 사자는 바위를 달래며 설악산이 금강산 만은 못하나 울산땅 보아야 나올 것이라며 그곳에 머물것을 허락했다. 이때부터 이 바위가 울산바위라 불리우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불교가 탄압을 받을 무렵 울산바위 얘기를 들은 울산 원님은 설악산 신흥사 주지에게 바위세를 바칠 것을 명하였다. 신흥사에서는 매년 엄청난 바위세를 물다보니 절의 살림이 매우 어려워졌다.

어느해 새로 부임한 주지는 묘안을 생각해냈다. 바위세를 받으려 행차한 원님에게 “우리 절에선 울산바위가 아무런 쓸모가 없소. 그 바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 곡식을 심었을텐데 매년 손해가 큼니다. 그러니 세를 받기로 한다면 오히려 우리 쪽이니 세를 내지 못하겠거든 당장 파가시오.”

당황한 원님은 궁리 끝에 “좋다. 바위를 파 갈터이니 새끼를 태운 채로 바위를 묶어놓아라. 한 달 후에 끌어가겠다.”

새끼를 태워 둘레가 10리가 넘는 바위를 묶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주지에게는 묘안이 있었다.

소금을 큰 물독에 풀어놓고 새끼에다 염국을 들인 후 바위를 매었다. 며칠 후 새끼를 들기름을 바른 뒤 거침없이 불을 붙였다. 기름뿜힌 새끼줄은 잘 탔지만 소금물에 절인 새끼는 걸만 타서 꼭 재처럼 보였다.

약속된 날 울산 원님은 망신만 당하고 돌아갔다. 그 때부터 신흥사는 바위세를 물지않게 되었다.

젊은 남녀가 같이 오르면 결혼조건 중 건강진단서가 필요치 않고 어린이들이 오르면 고소공포증이 사라진다는 설악산의 울산바위에 얽힌 새끼줄과 불 이야기이다.

새끼줄은 물건을 엮어매는데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새끼줄은 불에 타면 순식간에 채로 변하고 힘없이 부스러진다. 그래서 옛날 어린이들간에는 싸우고 난뒤 새끼 토막을 주워다가 불을 질러 태움으로써 화해를 하는 풍습이 있었다.

속에 쌓인 음성적 걱정을 밖으로 분출시키는 안정제로서, 싸움을 마무리하는 화해의 수단으로서 「새끼줄태우기」가 이용 되었던 점은 우리 조상의 지혜임에 틀림없다.